



27일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목포대교가 유달산(왼쪽)과 다도해의 푸른 물결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목포 북항과 신항(해남·진도 방향)을 잇는 목포대교는 전남 서남권 교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박주선 징역 2년 의원직 상실 위기

유태명 청장도 2년 법정구속...동구 불법선거운동 29명 전원 유죄 선고

광주지법 1심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광주 동구) 의원과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을 법정구속했고, 박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불체포 특권이 적용됨에 따라 국회에 체포요구동의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3·6면>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오전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며 박 의원과 유 구청장에 대해 조직적 범죄의 이익을 보는 상급자라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하

는 등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사건으로 불거진 동구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돼 기소된 29명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량과 주변 예상을 뛰어넘는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 유 구청장은 방연자살한 채 비서에게 휴대전화기를 맡긴 뒤 구치소로 향했고, 박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조직 구성이나 자금 마련 등을 맡아 주도했던 하급자보다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최종이익을 얻는 상급자, 즉 국회의원과 구청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은 것으로, 향후 불법선거운동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자치단체장은 직위가 상실된다.

이날 재판부는 또 현금 5900만원을 동구 13개 동 책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과는 달리 이씨의 경우 자금 마련 및 범죄 공모 과정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자금 출처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물어 형을 가중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와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에 대해서는 이들의 진술을 통해 범죄 전모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형을 감경, 각각 징역 1년6월

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단순히 자금 전달을 맡은 박 의원 선거캠프 특보 박모(53)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동구의회 부의장 조모(65)씨와 동구사랑여성회 지원2동 회장 배모(여·54)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동구의회 의원 남모(여·56)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인 조모(61)씨와 차모(53)씨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각각 350만원과 3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2면에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내일 개통 목포대교 달려보니

웅장함에 놀라고 빨라진 길에 탄성

전남 서남권 물류 수송의 대변화 가져오게 될 목포대교의 개통을 이틀 앞둔 27일, 옛거리의 애처로운 풍경이 남아 있는 목포시 죽교동 북항 일대는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기대로 가득했다.

이날 오후 공사 관계자와 함께 달려본 목포대교는 양 옆으로 펼쳐지는 유달산과 다도해의 아름다움을 물씬 느낄 수 있게 해줬다. 목포대교는 남도 설움의 상징과도 같았던 노래 '목포의 눈물'의 슬픈 가락이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웅장했다.

목포대교는 하당·남양 등 목포 동쪽에 집중됐던 개발에 비해 열악한 교통망으로 소외됐던 서쪽 지역을 바꿔 놓은 대역사다.

이 다리가 개통되면, 목포 도심과 영산호 하구둑을 통과하지 않아 북항에서 신항까지 통과시간이 5분으로 줄어든다. 목포IC에서 신항까지 60여 분이 걸리던 것이 20여 분으로 40여 분이 단축되고, 영산강하구둑 등의 상습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등 서남권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국내 첨단 건축 기술과 운전자를 위한 설계도 눈에 띄었다.

목포대교는 3346억원이 투입됐고, 총 연장 4.129km의 4차로이며, 국내 처음으로 '3웨이 케이블 공법'이 도입됐다. 보통 사각교는 다리 좌우 측에 각각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목포대교는 양 입구쪽(부경간)

에 바다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리 좌우 측이 아닌 도로 중앙선에만 외출 케이블을 놓았다. 다리 가운데(주경간)는 좌우 측에 케이블을 설치해 운전자가 시선으로 보면 세 줄의 케이블이 놓인 셈이다.

구도심으로 나가려면 배를 타거나 1시간 가량 버스를 타야 했던 고하도 주민들도 목포대교 개통을 반겼다. 김복남(65) 통장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선박이나 버스에 신고 먼 길을 돌아 병원에 가야 했는데, 이전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통식은 29일 오후 2시 목포대교 물양장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재무 의원

제9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재무(민주·광양 3) 의원이 당선됐다. 김 의원은 27일 열린 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61표 중 39표를 얻어 20표를 얻은 송대수(민주·여수2) 의원을 누르고 의장

로 선출됐다.

신임 김 의장은 진상종교와 순천제일대를 나와 전남지구 JCI회장, 민주당 전남도당 상무위원, 연청 광양지구 회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화희 의장, 전남지역 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부의장에는 임명규(민주·보성2) 의원과 송주호(민주·완도2) 의원이 뽑혔다. 또 운영위원장에 윤시석(민주·장성1) 의원, 건설소방위원장에 박총기(민주·신안2) 의원, 교육위원장에 권 옥(민주·목포2) 의원이 각각 뽑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준영 지사 "대선출마 결심 굳혔다"

내달초 서울서 공식 선언 "지사직 사퇴여부 고민중"

대선 출마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해 온 박준영 전남지사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사직 사퇴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박 지사는 27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선5기 전반기 도정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많은 고민과 고뇌를 거

듭힌 끝에 대선 출마를 최종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의 대선 출마실은 올 봄부터 흘러나왔으나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입으로 출마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선준비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고, (내가) 복선을 깔고 (대선을) 준비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은 출마하고 구체적 로드맵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아온 도지사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난 8년간 도정을 이끌어왔지만 대선 출마는 더 큰 문제"라며 "(지사직 사퇴)는 도민들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

사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그만뒀다"는 의견도 있다"며 "도민들과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다음달 초 서울 등 중앙무대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갖고 대통령선거 출마에 대한 자신의 기본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장필수기자 bung@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한-EU FTA 관세인하가격 선적용 판매
062)226-0001

2012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 ~ 6월 29일(금)까지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since 1952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기념 공연
2012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공연축제 참가작품

국립발레단, 광주 최초 공연!

Swan Lake
국립발레단 초청 '백조의 호수'
Korea National Ballet

우아한 백조와 도발적인호조의 모습에 감탄한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인형'과 함께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작품인 '백조의 호수'

2012년 7월 6일(금) 오후 8시,
7일(토) 오후 5시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 주최 | 광주일보사·광주문화재단 | 제작 | 국립발레단
| 후원 | K water
| 문의 | 062-220-0541 |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 VIP석 : 88,000원 | R석 : 66,000원 | S석 : 44,000원 | A석 : 22,000원